

**한국농어촌공사**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정기평가  
평가일: 2017.12.12

<b>평가개요</b>	신용등급 <b>A1</b>	평가대상 기업어음	유효기간 2018.06.30
-------------	-------------------	--------------	--------------------

<b>Analyst</b>	이승은 책임연구원 기정우 실장	02)6966-2494 02)6966-2464	selee@scri.co.kr jwki@scri.co.kr
----------------	---------------------	------------------------------	-------------------------------------

<b>Latest Rating</b>	평가일	구분	등급
	2017.06.30	본평가	A1
	2016.06.29	본평가	A1
	2015.06.26	본평가	A1

**재무요약**

(단위: 억원)

(개별기준)	2013.12	2014.12	2015.12	2016.12	2017.6
매출액	36,212	33,453	37,513	37,177	16,198
영업이익	234	223	727	-256	51
EBITDA	479	439	983	9	N/A
총자산	91,643	95,211	99,952	103,353	109,790
순차입금	43,750	51,889	61,756	65,288	64,445
EBITDA/매출액(%)	1.3	1.3	2.6	0.0	N/A
ROA(%)	0.4	0.4	0.7	1.7	0.3
부채비율(%)	399.3	402.1	409.0	385.9	418.9
차입금커버리지(배)	91.3	118.2	62.8	7,254.2	N/A
유동성커버리지(%)	344.3	87.4	89.7	91.2	N/A
회계기준	K-IFRS	K-IFRS	K-IFRS	K-IFRS	K-IFRS

주1: 순차입금=총차입금-현금및금융상품

주2: 차입금커버리지=순차입금/EBITDA, 유동성커버리지=(현금및금융상품+EBITDA)/단기성차입금

주3: 2017.6월 재무요약은 가결산 자료이며, 분기의 ROA는 당기순이익을 연환산하여 산출한 수치임

**평가의견**

서울신용평가(주)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A1으로 평가하며, 주요 평가요인은 다음과 같다.

- 법적·제도적 기반에 근거한 높은 정부지원 가능성
- 정부의 농어촌 지원사업 대행기관으로 법에 근거한 안정적인 사업구조
- 기금 및 특별회계 차입금을 제외한 실질적 재무안정성 우수

## ■ 신용등급 논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는 정부가 100%의 지분을 보유한 준정부기관으로 영위사업의 공공성 및 정책적 중요도가 높아 수행업무에 대해 확고한 법적·제도적 위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국고 및 지방비, 기금 등을 통해 조달하는 등 정부사업 대행기관으로서 공사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FTA 체결로 인한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 기조와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농업경쟁력 개선에 대한 국가 정책적 필요성 증대로 인해 공사의 공공성 및 영위사업의 안정성이 강화되는 추세로 향후 민영화 등에 따른 공사의 사업지위 변동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공사 영위사업의 특성상 차입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대부분 기금 및 농진청 차입금과 특별회계 귀속 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 및 농진청 차입금의 경우 정부기금을 통한 재원충당 또는 정부의 손실보전 등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 실질적인 상환부담은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정부는 과거 수 차례 공사에 대해 유상증자를 지속적으로 실행하였고 법적·제도적으로 다양한 수단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공사의 사업기반과 법적·제도적 지위, 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 및 낮은 민영화 가능성, 정부의 지원 의지 및 지원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공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가능성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 ■ 모니터링 요소

서울신용평가(주)는 공사의 법적·제도적 지위 변화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신용등급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신용등급 하향을 검토할 수 있다.

- 근거법령 개정 또는 정부정책 변화로 법적·제도적 지위가 약화되는 경우
- 대내외 환경 변화로 공사의 민영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주요 평가요소별 검토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에 근거하여 농어촌 정비사업, 농지은행사업, 농업기반시설 종합관리 및 농어민의 영농규모 적정화 등 정부의 농어촌 지원사업의 대행을 위해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임.

- 2016.12월 기준 대한민국 정부(기획재정부)가 공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주요 내용

제 6 조 (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5 조원으로 하고, 전액을 국가가 출자한다. ② 국가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토지 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제 27 조 (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 29 조 (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
제 32 조 (기금의 조성)	1. 정부출연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농지법」 제 38 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
제 34 조 (기금의 용도)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의 결과 발생한 결손금은 기금의 부담으로 손비 처리 할 수 있다.
제 35 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자료: 법제처

법적 지위가 확고하여 사업지위 변동 가능성 극히 낮음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는 농어촌공사법 등에 의해 보장된 확고한 법적·제도적 지위와 영위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민간 기업이 높은 공공성과 법적기반을 가진 공사의 사업을 대체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공사의 근간이 되는 농어촌공사법은 공사의 설립 및 고유목적사업의 운영 전반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 법에 의거하여 정부는 공사의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야 하며 공사의 사업 실적, 결산, 사업의 적정한 수행, 주요 인사권 등 사업 전반을 높은 수준으로 감독 및 통제하고 있음.
- 공사는 사실상 정부체계에 편입되어 있어 농지관리기금(정부출연금과 농지보전부담금 등으로 구성)과 수탁사업자금(지자체 및 정부주요부처의 예산으로 구성)으로 사업재원을 충당하고 있으며, 일부 부대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집행을 대행하는 성격이 강하여 향후 민영화 등을 통한 공사의 사업지위 변동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됨.

영위사업의 공공성 및 안정성 매우 높은 수준

공사는 정부의 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농업 생산성의 증대와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영위사업의 국가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사의 공공성 및 사업안정성은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공사는 농어촌용수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농어업 생산기반 조성·정비, 농지은행사업, 농어촌 지역개발, 기타 부대사업 등을 전국단위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윤추구 보다는 공공재 공급 및 관리를 통한 공공 효익 증진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음.
- 특히, FTA 체결로 인한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 기조와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농업경쟁력 개선에 대한 국가 정책적 필요성 증대로 인해 공사의 공공성 및 영위사업의 안정성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외형은 자체적인 사업보다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방향성과 예산집행, 농지관리기금의 농어촌 지원계획 등에 따라 변동하는 모습임. 정부의 정책에 연계되어 진행되는 공사의 사업 성격과 정부의 계획이 반영된 공사의 중장기 사업계획을 감안하면 향후 공사의 외형은 2017년 소폭 줄어든 후 완만한 증가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됨.
- 공사의 2016년 기준 매출구성은 용수관리 및 생산기반정비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농지은행, 지역개발, 기타사업이 각각 10% 내외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나 향후에는 점차 농지은행, 지역개발, 기타사업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자체사업성격이 강한 새만금 일반산업단지 분양사업의 경우 2017.6월 기준 OCI, 도레이첨단소재 등 총 6개 업체가 입주하였으며 분양률은 37.1%를 나타내고 있음. 2017~2021년 약 5,082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투자될 예정이나 민간대행개발,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과의 공동개발 등을 통해 투자부담을 완화할 계획에 있음.

사업부문별 매출구성 및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구분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관리사업	3,435	8.2	3,336	9.2	3,334	10.0	용수관리	11,626	31.0	11,154	30.0
구조개선사업	3,555	8.5	3,803	10.5	3,412	10.2	생산기반정비	12,463	33.2	11,659	31.4
개발사업	27,693	66.0	21,604	59.7	19,488	58.3	농지은행	3,958	10.6	4,312	11.6
건설사업	3,628	8.6	4,009	11.1	4,090	12.2	지역개발	6,205	16.5	6,447	17.3
부대사업	3,643	8.7	3,460	9.6	3,129	9.4	기타사업	3,262	8.7	3,605	9.7
합계	41,954	100.0	36,212	100.0	33,453	100.0	합계	37,513	100.0	37,177	100.0

자료: 감사보고서 및 공사제시

중장기 사업계획(매출기준)

(단위: 억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어촌 용수관리	9,387	27.3	8,950	25.2	9,012	23.3	9,045	22.5	9,101	22.1
농어업 생산기반정비	11,249	32.7	10,633	29.9	10,958	28.3	11,627	28.9	11,757	28.5
농지은행	3,885	11.3	4,243	11.9	4,504	11.6	5,004	12.4	5,137	12.5
농어촌 지역개발	5,561	16.2	6,308	17.8	7,299	18.9	7,472	18.6	8,044	19.5
해외 및 자체사업(기타)	4,344	12.6	5,394	15.2	6,935	17.9	7,053	17.5	7,183	17.4
합계	34,426	100.0	35,528	100.0	38,708	100.0	40,201	100.0	41,222	100.0

자료: 공사제시(2017.9월 기준)

**실질적인 재무부담 고려 시 자체 재무건전성 및 유동성 위험 양호한 수준**

공사의 차입금은 정부기금을 통한 재원충당과 손실보전 등이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상환 부담은 높지 않으므로 자체 재무건전성 및 유동성 위험은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정부의 농어업 활성화 사업을 대행하며 공익성을 우선시하는 공사의 영위사업 특성상 구조적으로 원가보전 수준의 수익성(2013~2015년 평균 ROA 0.6%)이 지속되고 있음.
- 다만, 2016년에는 매출원가율 상승과 인건비 등의 판매관리비 증가로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나 의왕시 사옥 매각이 완료됨에 따라 2,374억원 규모의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일시적인 영업외 수익이 증가하며 ROA가 1.7%를 기록하였음.
- 2017.6월말 기준 부채비율 및 순차입금의존도는 각각 418.9%, 58.7%로 높은 수준이나, 차입금 중 상당부분(2017.6월말 기준 총차입금의 98.3%)은 기금 및 농진청 차입금과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차입금으로 동 차입금에 대해 공사가 부담하는 실질적인 상환의무는 없음.
- 공사가 실질적으로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차입금은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에서 차입한 소수력발전사업자금(10억원)과 새만금산업단지과 관련하여 발행한 사채(1,270억원)로 공사의 EBITDA를 상회함.
- 그러나,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정부는 공사의 기금 운용·관리에 대해서는 손실보전을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 범위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어 충분한 자금조달 여력을 보유하고 있음.
- 한편, 2017.6월말 기준 실질 상환부담이 있는 단기성차입금은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에서 차입한 소수력발전사업자금(10억원)과 새만금산업단지 관련 유동성사채(570억)에 한정되어 있으며 EBITDA와 보유 현금 및 금융상품을 감안하면 유동성 대응능력은 양호한 수준임.

**차입금구성 및 추이**

(단위: 억원)

구분	사용처	2014	2015	2016	2017.6
<b>기금 및 특별회계 차입금</b>		<b>59,227</b>	<b>66,794</b>	<b>69,234</b>	<b>72,489</b>
CP	김포매립지 및 농진청부동산 매입	2,233	724	317	1,651
농지관리기금 차입금	영농규모화사업 등	41,498	44,794	47,602	50,586
FTA 이행지원기금 차입금	과원규모화사업 등	2,001	1,981	2,021	2,157
공사채	농진청 종전부동산 매입	13,495	19,295	19,295	18,095
<b>일반 차입금</b>		<b>589</b>	<b>1,285</b>	<b>1,282</b>	<b>1,280</b>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차입금	소수력발전사업	19	16	12	10
공사채	새만금 산단	570	1,269	1,270	1,270
<b>총차입금</b>		<b>59,816</b>	<b>68,078</b>	<b>70,516</b>	<b>73,769</b>
현금 및 금융상품		7,927	6,322	5,228	9,324
<b>순차입금</b>		<b>51,889</b>	<b>61,756</b>	<b>65,288</b>	<b>64,445</b>

자료: 감사보고서 및 공사제시

**정부의 지원의지 및 지원강도 매우 높은 수준**

공사 사업 전반에 대한 정부와 의회, 감독기관의 통제 수준이 높고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자본이 확충된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지원의지 및 지원강도는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정부는 매년 현금 출자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행함으로써 공사에 대해 지속적인 재무적 지원을 이어 오고 있음. 또한, 국고보조금과 공사채 지급보증을 통해 공사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강도는 매우 높은 수준임.
- 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유상증자, 보조금, 지급보증 등 다양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주요임원의 임면과 예산편성, 사채발행 등 사업 전반을 높은 수준에서 통제하고 있음. 특히, 안정적인 식량자원 확보에 대한 국가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도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Fundamental Review

단기신용도	Fundamental	정부의 지원가능성
A1	aaa	S-1

Mapping Grid

정부지원가능성		s-1	s-2	s-3	s-4	s-5
사업기반	공공성	√				
	사업안정성	√				
	영업 Coverage	√				
법적/제도적 지위	정부지분율	√				
	근거법령	√				
	정부의 통제강도	√				
민영화/구조조정 가능성	사업효율성		√			
	대체불가능수준	√				
정부지원 강도	지원내용	√				
	지원실적	√				

자체 재무건전성	양호	보통	미흡
ROA(%)		√	
레버리지(%)	√		
자금조달안정성	√		

주: 레버리지는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차입부채를 제외하고 산정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 관리 수준	양호	보통	미흡
-------------	----	----	----

Mapping Grid: 공기업

정부지원 가능성		s-1	s-2	s-3	s-4	s-5
사업기반	공공성	매우 높음	상당히 높음	높음	다소 낮음	낮음
	사업안정성	매우 높음	상당히 높음	높음	다소 낮음	낮음
	영업 Coverage	전국적	상당영역	국지적	협소	매우 협소
법적/제도적 지위	정부지분율	≥80%	≥50%	≥30%	≥20%	<20%
	근거법령	사업 대부분이 개별법/총칙법 적용	사업 대부분이 총칙법/단일조례 적용	사업일부가 총칙법/단일조례 적용	사업 대부분이 행정명령/행정규칙 적용	명목적인 법적/제도적 근거 미흡
	정부의 통제강도	매우 높음	상당히 높음	높음	다소 낮음	낮음
민영화/구조조정 가능성	사업효율성	매우 높음	상당히 높음	높음	다소 낮음	낮음
	대체불가능수준	매우 높음	상당히 높음	높음	다소 낮음	낮음
정부지원 강도	지원내용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다소 열위	열위
	지원실적	대규모의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원	상당 규모의 금액을 간헐적으로 지원	일정규모의 금액을 지원	지원 규모와 빈도가 미흡	지원실적이 미미함

구분	지원가능성 정도	Notching 수준
S-1	정부의 지원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	정부신용등급과 동일
S-2	정부의 지원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	정부신용등급과 동일 또는 정부신용등급 대비 -1 notch
S-3	정부의 지원가능성이 높은 수준	정부신용등급 대비 -1~3 notch
S-4	정부의 지원가능성이 다소 낮은 수준	정부신용등급 대비 -3~5 notch
S-5	정부의 지원가능성이 낮은 수준	민간기업과 동일



본 평가는 서울신용평가(주)가 공시한 공기업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였습니다. 신용평가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신용평가(주)의 홈페이지 [www.scri.co.kr](http://www.scri.co.kr)의 Research/평가방법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건 신용평가등급 산정에 이용한 중요자료는 감사보고서, 경영공시자료, 차입금 현황 등입니다.

[단기신용등급의 정의]

신용등급	정 의
A1	적기 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이어서 투자위험도가 극히 낮음.
A2	적기 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그 안정성은 A1등급에 비하여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3	적기 상환능력은 양호하나 장래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이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	적기 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그 안정성에 다소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C	적기 상환능력이 의문시되어 투기적 요소가 강함.
D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

주1: 상기 등급 중 A2부터 B까지는 당해 등급 내에서의 상대적 우월 정도에 따라 +, - 기호를 부기할 수 있음.

주2: 상기 등급 중 A1등급에서 A3등급까지는 적기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으로, B, C 등급은 환경변화에 따라 적기 상환능력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투기등급으로 분류됨.

- 본 신용평가의 평가개시일은 2017년 12월 7일이며, 평가완료일은 2017년 12월 12일입니다.
- 최근 2년간 평가요청인과 체결한 다른 신용평가 건수 및 수수료총액은 각각 2건, 5백만원입니다. 당사는 평가완료일 현재 평가요청인의 다른 신용평가용역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평가요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최근 2년간 평가요청인과 체결한 비평가용역계약 체결 건수 및 수수료 총액은 0건, 0백만원이며, 당사는 평가완료일 현재 평가요청인의 다른 비평가용역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1.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투자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현재시점에서의 서울신용평가(주)의 의견입니다. 신용등급은 신용위험을 제외한 다른 위험(시장가치 변동위험, 유동성위험, 운영위험 등의 여타 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특히, 구조화금융상품의 신용등급은 법령, 조세제도의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및 당사 간행물에 포함된 견해는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서술이 아니며,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라 신용위험에 대하여 예측한 의견으로서, 이러한 예측정보는 실제 결과치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당사 간행물에 포함된 견해는 환경변화 및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신용등급, 평가의견 및 간행물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문을 의미하지 않으며, 특정 증권 등의 투자의사결정(매매, 보유 등)을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등급이나 평가의견, 간행물 등은 정보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정보이용자들은 유가증권, 발행자, 보증기관 등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해 자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개인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이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을 이용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 신용평가서, 평가의견, 간행물 등 보고서는 평가대상자 또는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와 각종 공시자료 등 당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는 평가대상자 또는 의뢰인으로부터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았으며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대상자 또는 의뢰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평가의 특성 및 자료원의 제한성, 분석자, 분석도구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한 오류의 발생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 결정시에 활용되었거나 본 보고서에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그 정확성, 적합성 또는 충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제공된 정보의 오류, 시기 및 허위, 미제공 등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신용등급 및 본 보고서에 반영되었거나 포함되어 있는 정보 및 기재내용의 정확성, 완전성 및 적합성을 당사가 보증하거나 약속하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들은 신용등급 부여에 필요한 주요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이며, 평가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재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당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항을 제외하고 신용등급 및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5.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서울신용평가(주)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사전서면동의 없이는 무단 전재되거나 복사, 인용, 재판 매 또는 유포될 수 없습니다.

(개별) 재무지표(단위: 억원)	2012.12	2013.12	2014.12	2015.12	2016.12
회계기준	일반	K-IFRS	K-IFRS	K-IFRS	K-IFRS
매출액	41,954	36,212	33,453	37,513	37,177
영업이익	530	234	223	727	-256
EBITDA	779	479	439	983	9
영업외손익	230	134	278	166	2,487
순금융비용	194	82	82	68	63
세전계속사업이익	760	368	501	893	2,230
당기순이익	666	323	389	643	1,700
자산총계	83,466	91,643	95,211	99,952	103,353
유동자산	32,013	36,515	36,453	37,927	38,365
비유동자산	51,453	55,128	58,757	62,025	64,988
투자자산	20,327	1,759	1,921	1,901	1,051
유형자산	12,799	13,079	14,097	14,318	14,614
기타자산	18,327	40,289	42,739	45,806	49,323
부채총계	65,165	73,290	76,247	80,316	82,082
유동부채	19,112	19,946	23,531	18,147	15,437
비유동부채	46,053	53,343	52,716	62,169	66,646
자본총계	18,301	18,353	18,964	19,636	21,271
납입자본금	13,150	13,300	13,435	13,585	13,735
순운전자금	8,511	12,745	17,992	25,297	27,604
매출채권	6,091	4,717	6,678	4,767	6,183
재고자산	11,539	16,553	20,786	25,624	26,077
매입채무	9,119	8,525	9,472	5,094	4,655
총차입금	44,563	52,427	59,816	68,078	70,516
단기성차입금	3,211	2,659	9,573	8,146	5,741
장기성차입금	41,352	49,768	50,243	59,932	64,775
현금성자산 및 금융상품	13,207	8,677	7,927	6,322	5,228
순차입금	31,356	43,750	51,889	61,756	65,288
총영업활동현금흐름(TCF)	1,131	904	808	1,298	-136
운전자금 증감	-2,775	-9,759	-8,691	-7,647	-6,798
순운전자금 증감	-2,348	-3,855	-4,742	-2,935	-1,478
기타운전자금 증감	-427	-5,904	-3,949	-4,712	-5,320
순영업활동현금흐름(NCF)	-1,644	-8,855	-7,883	-6,348	-6,934
경상투자	-16,531	-8	-408	328	3,040
자본적지출(net)	-16,531	-8	-408	328	3,040
지분/증속기업투자(net)	-	-	-	-	-
잉여현금흐름(FCF)	-18,175	-8,863	-8,291	-6,020	-3,895
배당금지급	-128	-97	-	-73	-141
유상증자	100	150	135	150	150
자기주식(net)	-	-	-	-	-
기타	8,602	1,830	259	3,422	5,645
차입전 현금흐름	-9,473	-7,130	-8,032	-2,671	1,609
차입금 증감	8,875	7,864	7,387	8,260	2,435
연결실체변동/환율변동효과	-	-	-	-	-
현금 및 금융상품 증감	-598	734	-645	5,589	4,044
매출채권 회수기간(월)	1.7	1.8	2.0	1.8	1.8
재고자산 보유기간(월)	2.4	4.7	6.7	7.4	8.3
매입채무 결제기간(월)	2.3	2.9	3.2	2.3	1.6
총자산회전율(회)	0.5	0.4	0.4	0.4	0.4
매출액증가율(%)	-1.3	-13.7	-7.6	12.1	-0.9
매출원가율(%)	97.5	98.0	98.0	96.6	99.0
영업이익률(%)	1.3	0.6	0.7	1.9	-0.7
ROA(%)	0.8	0.4	0.4	0.7	1.7
EBITDA/매출액(%)	1.9	1.3	1.3	2.6	0.0
EBITDA/금융비용(배)	1,286.4	990.1	980.5	2,634.2	35.3
순운전자금/매출액(%)	20.3	35.2	53.8	67.4	74.3
부채비율(%)	356.1	399.3	402.1	409.0	385.9
순차입금의존도(%)	37.6	47.7	54.5	61.8	63.2
단기성차입금/총차입금(%)	7.2	5.1	16.0	12.0	8.1
유동성커버리지(%)	435.6	344.3	87.4	89.7	91.2
영업활동현금흐름(NCF)/매출액(%)	-3.9	-24.5	-23.6	-16.3	-18.7
잉여현금흐름(FCF)/총차입금(%)	-40.8	-16.9	-13.9	-8.8	-5.5
차입금커버리지(배)	40.3	91.3	118.2	62.8	7,254.2